

‘100m 한국新’ 김국영 은퇴…국가대표 코치로 뛴다

한국 육상 간판스타 김국영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가대표 지도자로 2막을 연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시청 소속으로 대회를 뛴 김국영은 지난 12일 대한육상연맹이 발표한 국가대표팀 대표코치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그는 여자 단거리 국가대표 선수의 성장을 돕게 됐다.

김국영은 한국 남자 단거리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0년 6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였다.

그는 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1을 기록하며 고(故) 서말규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한국 기록(10초34)을 31년 만에 갈아치웠다.

이어 같은 대회 준결승에서는 10초23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한국 단거리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김국영의 절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초16을 뛴 뒤 신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2017년에는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

린 KBS배에서 10초13을, 이틀 뒤 열린 코리아 오픈 100m 결선에서는 10초07로 주파하며 개인 통산 다섯 번째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그가 작성한 10초07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대기록이다.

김국영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10초1의 벽을 돌파한 스프린터 역시 없다. 실제 한국 남자 100m 역대 1~7위(10초07~10초16) 기록은 김국영이 모두 보유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활약 또한 눈에 띈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100m와 계주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본선 무대에 올랐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출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로 자리매김했다.

또 2023년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에서 이정태, 이재성, 고승환과 함께 38초74의 기록을 합작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 메달은 37년 만에

었다. 이전 메달은 성낙균, 장재근, 김종일, 심덕섭이 이어 달린 1986년 서울 대회다.

이후 국내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간 김국영은 올해 9월 마지막 무대를 금빛으로 장식했다.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6회 KTFL 전국실업단체육상경기대회’ 남자

남자 10초07기록…새역사 열어

역대 1위부터 7위까지 기록 보유

올해 9월 광주시청 소속 마지막 활동

여자 육상 단거리 대표 지도

400m 계주에서 김태효, 강

의빈, 고승환과 호흡을 맞

춰 39초34로 금메달을

따낸 것. 이 무대를 마지

막으로 김국영은 사

실상 은퇴 절차를 밟



았다.

이렇듯 화려한 커리어를 작성한 김국영 또한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었다.

한국 육상 단거리의 숙원인 ‘9초대 진입’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9초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스프린터로서의 여정을 마치고 지도자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

김국영은 올해 대한체육회 선수 위원장직을 소화하며 선수들의 치우 개선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육상 여자 단거리 대표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선수가 아닌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소화하게 된다.

한국 육상의 성장을 주도했던 김국영이 국가대표 단거리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FC 유소년재단, 지역 스포츠 활성화 꾀해

주명진택과 업무 협약 체결

공동 마케팅·홍보 활동 추진

광주FC 유소년재단이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주명진택과 손을 맞잡았다.

유소년 재단은 최근 광주축구전용구장 대표이사실에서 노동일 유소년재단 이사장과 정도성 명진택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마케팅·홍보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 내 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소년재단은 지역 내 운수·광고 선도 기업인 명진택을 공식 스폰서로 지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상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축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택은 유소년재단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사가 운영·관리하는 10개 버스 노선의 외부 측면 광고를 제공한다. 일상 생활권 내 버스 광고는 시민 접점을 높이는 효과적인 홍보 매체로, 유



유소년 재단은 최근 광주축구전용구장 대표이사실에서 노동일 유소년재단 이사장과 정도성 명진택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소년 축구에 대한 관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성 명진택 전무는 “지역 대표 구단과의 협력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동일 유소년재단 이사장은 “지역 기업과의 협력은 유소년 축구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광주 축구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시체육회 무등팀, 야구인들에게 감사패 받아

야구소프트볼인의 밤서 수상…대통령배 대회 지원 등 유공

광주시체육회 무등팀이 올 한해 체육시설물 관리와 야구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제공 등의 유공으로 감사패를 받는다.

1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 무등팀은 15일 오후 6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2025 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에서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됐다.

무등팀은 무등야구장 전반을 관리하는 시체육회 시설부서로, 한 해 동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최한 전국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왔다. 지난 8월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2회 대통령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는 선수들이 폭염 속에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덕아웃에 콜링포그 시스템 설치와 그라운드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또 무등팀은 그동안 관람석 의자 설치, 내야 그라운드 인조잔디 개선, 안전펜스 및 안전 그물망 추가설치 등을 통해 시민과 선수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무등야구장을 비롯해 월드컵경기장, 국제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무등팀 노고에 힘입어 중앙종목단체의 감사패를 수상하게 돼 축하하



광주시체육회 무등팀이 올 한해 체육시설물 관리와 야구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제공 등의 유공으로 감사패를 받는다.

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주가 야구 메카도시인 만큼 많은 대회가 유치·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월드컵 입장권 판매…한국 조별리그 보려면 최소 86만원



개인당 경기별 4장까지 신청

전체 토너먼트 40장까지 가능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세 경기를 관람하려면 최소 585달러(약 86만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FIFA는 12일(한국시간) 새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구매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당 경기별 최대 4장, 전체 토너먼트를 통틀어 최대 40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FIFA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 중 티켓 배정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FIFA는 이번 월드컵부터 입장권 ‘유동 가격제’를 도입했다. 티켓 가격은 경기별 예상 수요를 기

준으로 책정되며,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경기는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게 된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D조 승자와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한국은 멕시코전 티켓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 뒤이어 유럽 PO D조 승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순으로 가격이 정해졌다.

멕시코전의 최저가 좌석은 카테고리 3으로 265달러이며, 카테고리 2는 500달러, 카테고리 1은 700달러로 책정됐다.

한국 국가대표팀 공식 서포터 좌석도 카테고리 1~3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스탠더드, 밸류 등급으로 나누어 판매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보려면 최소 585달러가 필요하게 됐다.

한국은 유럽 POD그룹 승자와 내년 6월 12일 오전 11시 과달라하라의 아르콘 스타디움에서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6월 1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2차전을 벌인 뒤 6월 25일 오전 10시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가진다. 연합뉴스

도장애인체육회-구례, 전남장애인체전 준비 본격화

경기장 실사·개최 계획 등 대회 추진 방향 논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내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대회는 21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전남 22개 시·군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화합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도장애인체육회는 구례군청 전남체전TF팀과 협력해 대회 일정 확정, 상징물 및 구호 승인 등 주요 준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폐회식과 성화행사를 총괄할 전문대행사를 선정했으며, 구례의 역사와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개행사 연출을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본격적인 대회 추진을 위한 ‘제34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경기단체 합동회의’가 지난 11일 구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열리기도 했다. 회의에는 전남도, 도장애인체육회, 구례군, 각 경기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경기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어 대회 개최계획 보고 및 참가 요강 협의,



구례군의 협조 사항 등 대회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임진출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차장은 “이번 경기단체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며 “22개 시·군 장애인을 대표하는 스포츠 축제를 넘어, 구례군과 함께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성하고 감동적인 대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